

Artist's Statement

박현웅

BB와 함께

계절이 길게 바뀌어 갈 때면, 문득 BB와 함께 여행했던 여러 장소가 떠오릅니다. 여름은 봄을 건너 느닷없이 찾아오듯, BB는 그런 여름을 닮았습니다. 그는 예고 없는 반가운 방문처럼 나타났다가도, 여름이 다 가기 전 어디론가 떠나곤 했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고 이내 하얗게 변하는 계절이 찾아올 즈음, 그는 비로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BB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가 지닌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유명한 장소의 건축물이나 음식들은 그저 세상 곳곳을 구분하는 '주소'와 같은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달렸던 길들은 여러 색의 스트라이프 로드(stripe road)였는데, 어쩌면 이는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길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BB는 이 스트라이프 로드의 갈림길에서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온 했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이 나타나도, 그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BB는 말했습니다. '그 길은 단지 다른 색의 길일 뿐이야'라고. 세상에 나쁜 색이란 없으니깐요.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의 독특한 여행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점차 그의 자유로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BB는 새로운 여름의 자유를 찾아, 어딘가 푸른 들판을 달리고 있겠지요...